

# 오피니언

## 특별기고

조현종



하늘에 떠 있는 반원형의 아름다운 색 동다리. 비가 개이고 햇빛이 나면 공기 중의 수많은 물방울이 프리즘 작용을 하여 생기며, 태양의 반대편 하늘에 나타난다.

자연현상인 무지개의 명칭은 나라마다 다르다. 그렇지만 반원형의 형태에서 착안하고 있는 점은 기본적으로 같다. 영어의 'rainbow'(비의 활)이라거나, 프랑스어의 'arc-en-ciel'(하늘에 걸린 아치)가 그렇다. 여기에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등 한자문화권에서도 '虹(홍)이라 하여 동글게 흰 뱀이나 용의 일종으로 보았으니 역시 형태에 주목한 것이다.

### 이루고 싶은 꿈의 상징

그러나 무지개의 생명은 색에 있다. 일컬어 무지개색은 색의 백미인 것이다. 이처럼 여러 색을 구분하지 않고 함축적으로 말한 단어가 어디에 또 있을까? 무지개가 색깔, 즉 색의 스펙트럼은 다양하지만, 각각 색사이의 경계를 구분하

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2~7색으로 나누거나 또는 단순히 명암만으로 구분하는 등 지역 혹은 민족, 그리고 시대에 따라 인식되는 색의 수자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의 7색은 영국의 아이작 뉴턴

### 이 광학적인 개념으로 규정된 결과이다.

여러 색 사이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색을 연출하는 무지개는 '다양성' '공존' '조화' 그리고 '평화'를 상징한다. 여러 색 사이의 난립이나 충돌, 난잡함, 조잡스러움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까닭은 정결한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다. 무지개가 기상광학현상으로 생성된 외경의 대상이기에 앞서 무지개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과 희망이 있기 때

문이다. 지금은 여러 갈래 길이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광주는 광주의 관문이었다. 국립광주박물관과 시립미술관, 민속박물관이 위치한 중외공원지구이다.

이곳엔 청·홍·백의 아름다운 무지개다리가 놓여 있다. 우리 고장 하서 문중의 김영중 선생이 남긴 1995년 비엔날레 기념 조형물이다. 알거나 모르거나 사람들은 이 무지개다리를 통해서 광주와 만나거나 이별을 한다. 말하자면 꿈을 꾸며 떠나거나 꿈을 안고 들어오는 것이다.

사실, 지금의 무등산은 과거 서석산이

## 무지개를 아시나요?

었다. 1574년의 제봉 고경명의 '遊瑞石錄(유서석록)'과 1778년 다산 정약용의 '遊瑞石山記(유서석산기)'가 그렇다.

오늘날 서석이란 이름이 그곳에서 연유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역사적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인 아니지만, '瑞石'이란 상서로운 돌이란 뜻이니, 글자대로 무지개색이 감도는 옥돌을 의미하며 필시 '무돌'이란 말도 그것의 범주안에 자리한다는 견해가 대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옥돌이나 무돌은 빛의 프리즘으로 생성된 무지개이고 곧,

이 무지개는 오늘날 광주가 되는 셈이다. 광주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를 지향한다고 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전에는 각각의 지역과 나라들이 고유한 자기문화속에서 생활하였지만, 지금은 온 지구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 광주의 아이콘 삼았으면

예컨대 인터넷과 디지털문화가 온 세계를 그물처럼 엮어 놓은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공백없이 하나의 지구를 향하는 게 분명해진 지금, 문화의 중심 또는 그 상대어인 변방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 다양성과 공유와 같은 단어가 생명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색깔의 숫자가 몇 개이든 다양성과 조화의 절정은 무지개이다. 광주가 역사적이고 생태적으로 아시아이다! 그들의 문화가 어우러진 다문화사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본격적인 시점이다.

과연 이곳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만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려면, 어떨든 가슴에 새긴 그러한 희망을 시민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무지개, 다양성의 조화, 특히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아이콘으로 유감해볼직하다.

<국립광주박물관장·문학박사>

## 기고



김은영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영화 일을 하는 아들과의 대화를 엮어 책으로 발간한다. 아들 안토니오 시오네는 할리우드에서 잘나가다가 로마로 돌아오는데 그 이유가 "미국에서 영화는 사업이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예술"이기 때문. 그것은 휴대폰이 연락수단인지 대화수단이 아닌 것처럼, 할리우드에서는 답답분야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숨이 막혔고 그렇기에 사람 속에서 부대끼며 사람과 함께 누비고 싶었던 까닭에 그는 이탈리아 여행을 선택한 것이다. 가장 모자(母子)의 영화 인생을 이야기 하면서 덧붙이는 것이 숙스럽긴 하지만,

## '극장(劇場)'에서 영화를 보다

열아홉 나이가 된 큰 딸아이가 네 살 때, TV를 없애기로 결정한 것은 아이를 TV가 삼켰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엄마 품을 멀리하고 너무나도 '재미있는' 세계에 자석처럼 달라붙었다. TV를 이기지 못해 TV를 버려야 했다.

이렇게 해서 TV를 없애는 대신 일주일에 한 두 편 영화를 관람하는 영화인생을 시작했다. "TV는 오락이지만 영화는 예술"이라고 주장해서도 아니고, 단지 영화는 극장이라는 시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적당한 단절과 절제가 가능해서 좋았던 것 같다.

오랜 세월 영화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만큼의 시간을 극장에서 보냈으니, 수준있는 감식안 내지 엄격한 비평적 안목도 생겼으리만 예 영화를 좋아하는지 생각해본 적이 없이 그저 좋아하기만 했던 적이 아깝기는 하다. "책과 영화는 동격"이라는 생각을 은근히 가졌던 것이 이유라면 이

유랄까. 이렇듯 개념 없는 탓에 장르 불문, 단일관 이전 멀티플렉스건 장소 불문하고 영화를 관람하다 얼마 전부터 광주극장에서 몇 편 영화를 만났다.

광주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평소 남달라 보였으나 꼭 보아야 할 영화목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기회가 닿으면 모를까 일부러 선호하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다. 며칠전 절친한 친구와 함께 광주극장에서 '세 일간지'를 관람하면서 비로소 '극장'에서 영화감상 한다는 것의 참 느낌을 갖게 되었다.

'세 일간지'의 캐릭터와 스토리가 주는 감동도 감동이지만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읽으면서 선망하게 된 라다크의 하늘호수로 우리를 데려다 주는 그 스펙타클한 화면은 무삭제 원본의 3시간 동안 내내 우리를 압도했다. 인도의 절경을 여행하는 듯한 아름다운 영상 속에 '세 일간지'와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있었다. 정말 영화는 '극장'에서 보아야 제격이다.

광주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인정하겠지만, 광주극장은 광주의 아니 광주를 넘어서 한국에술영화계의 보석같은 곳이다.

2012년 광주비엔날레를 이끌어갈 여섯명의 여성 감독들이 광주라는 도시를 리서치하면서 가장 환상적인 장소로 손꼽은 곳도 다름 아닌 광주극장이다! 도시마다 극장을 쾌적하고 안락하고 세련된 복합 상영관으로 단장을 할 때 그야말로 옛날식 단일상영관의 대형 스크린과 사그리질듯한 극장의 동통한 분위기를 보고 지극히 매료되었던 것이다.

이 공간을 통해 어떤 전시를 구상하게 될지 아직은 미지수지만, 이곳이 있기에 광주를 광주답게 하는 문화적 힘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 은근한 자부심이 더해지는 것은 부인할 길 없다.

다시, 시오노 나나미는 '나의 인생은 영화관에서 시작되었다'는 에세이를 펴낸 적이 있다. 광주극장에서 조용히 그러나 열정적인 인생이, 예술이 시작되는 젊은 세대를, 그리고 광주사람들을 잠시 꿈꾸어 본다. <광주비엔날레 제단 전시부장>

## 기고



김옥선

언제나 우리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기다린다. 새로운 제품을 갖게 되거나 새 차를 구입할 때 설레임과 즐거움을 느끼며 마른다. 산업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신산업이나 신기술은 일반적으로 좋고 편하고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의 변화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수출 주도의 경공업에서 시작해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시대를 거쳐 이제는 IT·BT를 위시한 첨단산업이 중추가 됐다. 더 나아가 첨단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 발전의 중심공간이었던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이다. 전국적으로 918곳의 산업단

## 일할 맛 나는 산업단지를 만들자

지가 있지만 조성된 지 30~40년이 넘는 산업단지가 20%를 넘고 있다. 문제는 이 노후한 산업단지가 여전히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라는 사실이다. 경제발전의 요람이자 일터인 산업단지 조성발전 일은 옛날 일이 되었다. 낡고 오래된 산업단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꺾어먹을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산업단지에서 출퇴근길의 교통난, 주차난이 일상화 되어버린 지 오래다. '창의와 혁신'이라는 기업과 근로자의 기본적인 요구가 외면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산업단지를 버리고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나 최선일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정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 추진 중인 'QWL(Quality of Working Life)밸리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노후한 산업단지를 근로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산업단지이자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일터·배우터·즐거터로 만드는 사업이다. 복지와 편의시설이 부족해 퇴근 후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먼 시대로 진출해야 하

고, 굳어버린 부정적 이미지도 취업률이 낮아지고 자취 수 십 년간 쌓아온 기술인력의 단절까지 우려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낡은 공장을 신·증축하고 주차장을 늘리고 도로를 넓혀 출근길 교통문제를 해결해 일할 맛 나는 공간으로 만들고, 산업단지 내 대학과 연구시설이 들어와 근로자들에게 교육과 산학협력 등의 혜택을 부여해 배우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축제,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보육시설 건립을 통해 중국에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전처럼 오로지 생산에만 치중하던 산업단지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기업의 눈높이도 성장에 도모할 수 있는 환경과 편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중시하는 시대이다. 이른바 '삶의 질'이 강조되는 시대다. 환경친화적이고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충족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단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목표했던 성과를 얻으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민·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만들고 성공적인 선도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프랑스로 파리 인근 세느강변의 공업도시였던 '이세레물리노'가 자치 공동화된 공간으로 방치된 뻥한 위기에서 오늘날 첨단 지식기반 산업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기업으로 가득찬 공간이 되기까지는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 입주기업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협력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산업단지는 국가 기간 산업의 터전이고 지역 경제의 보루며, 지역주민의 소중한 일터다. 모두가 협력해야 하는 이유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권 산업단지에도 이 문제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산업단지를 일할 맛 나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무엇보다 시작해야 할 것인 할 때다.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청년들에게 단순한 일터로서만이 아니라 배우터, 즐거터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시장>

음이다. 그리고 농민들이나 쌀 농사를 짓는 농촌에서는 누가 막걸리를 만들어 팔든 상관없다. 그 막걸리의 원재료인 쌀을 어느 것을 쓰느냐, 즉 우리 쌀을 사용해 만든 순수 100% 토종 막걸리나 아니면 수입쌀을 사용한 막걸리냐가 문제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대기업들이 만드는 막걸리 대부분이 '수입쌀 막걸리'다. 이거야말로 우리 쌀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나 농가가 열심히 막걸리 시장을 개척하고 홍보해 놓으니까 대기업들이 뒤늦게 뛰어들어 수입쌀로 장사하는 꼴이니 어처구

니었다. 막걸리시장은 이제 제대로 커지고 있다. 이걸 진정으로 우리 쌀 소비확대와 연계시키려면 막걸리용 쌀의 원산지표시가 급하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국내산 쌀 막걸리인지 확인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대학가와 유통매장 등에서 시음하면 효과를 볼 것이다. 막걸리 수출업체들도 '국산 쌀 막걸리'로 차별화해서 팔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라면 돈 조금 더 주고라도 우리 쌀로 빚은 토종 막걸리를 찾을 걸로 본다. <▲김진우·여천시 안산동>

## 시설

### 중학 교과서 '5·18 학제'역사 농단이다

교과부가 마련한 중학교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4·19 혁명 등 기존 교과서에 들어있던 민주화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

이는 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명 '역사(沒歷史)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새 집필기준에 대해 대다수 역사학계 학자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행 집필기준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6월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천임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기록이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또 5·18과 신군부의 정권 장악,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과 장기집권체제 등 독재 관련 부분도 집필기준에 들어 있다.

하지만, 새 집필기준은 독재와 친일파 청산 부분을 감춘 반면 5·18 등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사장시켰다. 역사 왜곡을 넘어 농단이자 광주시민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의 희생 속에 일궈낸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다. 더욱이 5·18 민주화운동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이다. 그래서 5월 단체와 정치권은 새 기준을 역사 퇴보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18년 독재정권과 군부 권력의 상징인 5공과 6공을 무너뜨리는 기록제가 됐고,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지 않았던가. 이런 소중한 역사적 사실을 삭제하는 것은 민주정부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이래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역사의식을 제대로 심어줄 수 있겠는가.

이번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은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학교 교육을 권력 이해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준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새 집필기준을 즉각 철회하고, 사실에 입각한 역사 기술을 다시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새 집필기준은 독재와 친일파 청산 부분을 감춘 반면 5·18 등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사장시켰다. 역사 왜곡을 넘어 농단이자 광주시민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의 희생 속에 일궈낸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다. 더욱이 5·18 민주화운동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이다. 그래서 5월 단체와 정치권은 새 기준을 역사 퇴보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새 집필기준은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학교 교육을 권력 이해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준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새 집필기준을 즉각 철회하고, 사실에 입각한 역사 기술을 다시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새 집필기준은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학교 교육을 권력 이해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준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새 집필기준을 즉각 철회하고, 사실에 입각한 역사 기술을 다시 해야 할 것이다.

### 無 等 鼓

개그맨 김병만은 전북 완주의 가난한 집에서 1남3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고교 졸업 후 건물 철거, 폐기물 수거, 일용직 노동 등 안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어렵게 살았다. 작은 키(158.7cm)로 인해 항상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8번째 도전만에 KBS 개그맨 공채에 합격한 7전8기 인생이다. 하지만 KBS 개그콘서트 '달인'코너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몸매가 최고 스타가 됐다. '몸매그는 수준이 낮다'는 개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도 각고의 노력 끝에 달인 수준의 실력파를 풍자한 유투브로 바꾸어 놓았다.

3년11개월동안 그가 선보인 달인 캐릭터는 260개에 달한다. 아무런 맛도 못 느끼는 '실태 선행', 한 자세로만 살아온 '죽돌 선행', 격파의 달인 '굴뚝 선행',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온 '부진 선행'이 대표적이다. 김병만이 13일 방송분 출연을 끝으로 달인 코너에서 스스로 하차하기로 했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

다. 이유에서다.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전형적인 중상류층 가정인 밀라노의 은행원 아들로 태어났다. 건설업 등으로 막대한 돈을 모아 이탈리아 최대의 미디어 항상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8번째 도전만에 KBS 개그맨 공채에 합격한 7전8기 인생이다. 하지만 KBS 개그콘서트 '달인'코너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몸매가 최고 스타가 됐다. '몸매그는 수준이 낮다'는 개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도 각고의 노력 끝에 달인 수준의 실력파를 풍자한 유투브로 바꾸어 놓았다.

3년11개월동안 그가 선보인 달인 캐릭터는 260개에 달한다. 아무런 맛도 못 느끼는 '실태 선행', 한 자세로만 살아온 '죽돌 선행', 격파의 달인 '굴뚝 선행',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온 '부진 선행'이 대표적이다. 김병만이 13일 방송분 출연을 끝으로 달인 코너에서 스스로 하차하기로 했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

다. 이유에서다.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전형적인 중상류층 가정인 밀라노의 은행원 아들로 태어났다. 건설업 등으로 막대한 돈을 모아 이탈리아 최대의 미디어 항상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8번째 도전만에 KBS 개그맨 공채에 합격한 7전8기 인생이다. 하지만 KBS 개그콘서트 '달인'코너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몸매가 최고 스타가 됐다. '몸매그는 수준이 낮다'는 개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도 각고의 노력 끝에 달인 수준의 실력파를 풍자한 유투브로 바꾸어 놓았다.

3년11개월동안 그가 선보인 달인 캐릭터는 260개에 달한다. 아무런 맛도 못 느끼는 '실태 선행', 한 자세로만 살아온 '죽돌 선행', 격파의 달인 '굴뚝 선행',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온 '부진 선행'이 대표적이다. 김병만이 13일 방송분 출연을 끝으로 달인 코너에서 스스로 하차하기로 했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

다. 이유에서다.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전형적인 중상류층 가정인 밀라노의 은행원 아들로 태어났다. 건설업 등으로 막대한 돈을 모아 이탈리아 최대의 미디어 항상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8번째 도전만에 KBS 개그맨 공채에 합격한 7전8기 인생이다. 하지만 KBS 개그콘서트 '달인'코너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몸매가 최고 스타가 됐다. '몸매그는 수준이 낮다'는 개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도 각고의 노력 끝에 달인 수준의 실력파를 풍자한 유투브로 바꾸어 놓았다.

3년11개월동안 그가 선보인 달인 캐릭터는 260개에 달한다. 아무런 맛도 못 느끼는 '실태 선행', 한 자세로만 살아온 '죽돌 선행', 격파의 달인 '굴뚝 선행',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온 '부진 선행'이 대표적이다. 김병만이 13일 방송분 출연을 끝으로 달인 코너에서 스스로 하차하기로 했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

다. 이유에서다.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전형적인 중상류층 가정인 밀라노의 은행원 아들로 태어났다. 건설업 등으로 막대한 돈을 모아 이탈리아 최대의 미디어 항상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8번째 도전만에 KBS 개그맨 공채에 합격한 7전8기 인생이다. 하지만 KBS 개그콘서트 '달인'코너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몸매가 최고 스타가 됐다. '몸매그는 수준이 낮다'는 개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도 각고의 노력 끝에 달인 수준의 실력파를 풍자한 유투브로 바꾸어 놓았다.

3년11개월동안 그가 선보인 달인 캐릭터는 260개에 달한다. 아무런 맛도 못 느끼는 '실태 선행', 한 자세로만 살아온 '죽돌 선행', 격파의 달인 '굴뚝 선행',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온 '부진 선행'이 대표적이다. 김병만이 13일 방송분 출연을 끝으로 달인 코너에서 스스로 하차하기로 했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

다. 이유에서다.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전형적인 중상류층 가정인 밀라노의 은행원 아들로 태어났다. 건설업 등으로 막대한 돈을 모아 이탈리아 최대의 미디어 항상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8번째 도전만에 KBS 개그맨 공채에 합격한 7전8기 인생이다. 하지만 KBS 개그콘서트 '달인'코너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몸매가 최고 스타가 됐다. '몸매그는 수준이 낮다'는 개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도 각고의 노력 끝에 달인 수준의 실력파를 풍자한 유투브로 바꾸어 놓았다.

3년11개월동안 그가 선보인 달인 캐릭터는 260개에 달한다. 아무런 맛도 못 느끼는 '실태 선행', 한 자세로만 살아온 '죽돌 선행', 격파의 달인 '굴뚝 선행',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온 '부진 선행'이 대표적이다. 김병만이 13일 방송분 출연을 끝으로 달인 코너에서 스스로 하차하기로 했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

다. 이유에서다.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전형적인 중상류층 가정인 밀라노의 은행원 아들로 태어났다. 건설업 등으로 막대한 돈을 모아 이탈리아 최대의 미디어 항상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8번째 도전만에 KBS 개그맨 공채에 합격한 7전8기 인생이다. 하지만 KBS 개그콘서트 '달인'코너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몸매가 최고 스타가 됐다. '몸매그는 수준이 낮다'는 개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도 각고의 노력 끝에 달인 수준의 실력파를 풍자한 유투브로 바꾸어 놓았다.

3년11개월동안 그가 선보인 달인 캐릭터는 260개에 달한다. 아무런 맛도 못 느끼는 '실태 선행', 한 자세로만 살아온 '죽돌 선행', 격파의 달인 '굴뚝 선행',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온 '부진 선행'이 대표적이다. 김병만이 13일 방송분 출연을 끝으로 달인 코너에서 스스로 하차하기로 했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

다. 이유에서다.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전형적인 중상류층 가정인 밀라노의 은행원 아들로 태어났다. 건설업 등으로 막대한 돈을 모아 이탈리아 최대의 미디어 항상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8번째 도전만에 KBS 개그맨 공채에 합격한 7전8기 인생이다. 하지만 KBS 개그콘서트 '달인'코너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몸매가 최고 스타가 됐다. '몸매그는 수준이 낮다'는 개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도 각고의 노력 끝에 달인 수준의 실력파를 풍자한 유투브로 바꾸어 놓았다.

3년11개월동안 그가 선보인 달인 캐릭터는 260개에 달한다. 아무런 맛도 못 느끼는 '실태 선행', 한 자세로만 살아온 '죽돌 선행', 격파의 달인 '굴뚝 선행',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온 '부진 선행'이 대표적이다. 김병만이 13일 방송분 출연을 끝으로 달인 코너에서 스스로 하차하기로 했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

다. 이유에서다.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전형적인 중상류층 가정인 밀라노의 은행원 아들로 태어났다. 건설업 등으로 막대한 돈을 모아 이탈리아 최대의 미디어 항상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8번째 도전만에 KBS 개그맨 공채에 합격한 7전8기 인생이다. 하지만 KBS 개그콘서트 '달인'코너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몸매가 최고 스타가 됐다. '몸매그는 수준이 낮다'는 개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도 각고의 노력 끝에 달인 수준의 실력파를 풍자한 유투브로 바꾸어 놓았다.

3년11개월동안 그가 선보인 달인 캐릭터는 260개에 달한다. 아무런 맛도 못 느끼는 '실태 선행', 한 자세로만 살아온 '죽돌 선행', 격파의 달인 '굴뚝 선행',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온 '부진 선행'이 대표적이다. 김병만이 13일 방송분 출연을 끝으로 달인 코너에서 스스로 하차하기로 했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

다. 이유에서다.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전형적인 중상류층 가정인 밀라노의 은행원 아들로 태어났다. 건설업 등으로 막대한 돈을 모아 이탈리아 최대의 미디어 항상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8번째 도전만에 KBS 개그맨 공채에 합격한 7전8기 인생이다. 하지만 KBS 개그콘서트 '달인'코너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몸매가 최고 스타가 됐다. '몸매그는 수준이 낮다'는 개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도 각고의 노력 끝에 달인 수준의 실력파를 풍자한 유투브로 바꾸어 놓았다.

3년11개월동안 그가 선보인 달인 캐릭터는 260개에 달한다. 아무런 맛도 못 느끼는 '실태 선행', 한 자세로만 살아온 '죽돌 선행', 격파의 달인 '굴뚝 선행',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온 '부진 선행'이 대표적이다. 김병만이 13일 방송분 출연을 끝으로 달인 코너에서 스스로 하차하기로 했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

다. 이유에서다.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전형적인 중상류층 가정인 밀라노의 은행원 아들로 태어났다. 건설업 등으로 막대한 돈을 모아 이탈리아 최대의 미디어 항상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8번째 도전만에 KBS 개그맨 공채에 합격한 7전8기 인생이다. 하지만 KBS 개그콘서트 '달인'코너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몸매가 최고 스타가 됐다. '몸매그는 수준이 낮다'는 개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도 각고의 노력 끝에 달인 수준의 실력파를 풍자한 유투브로 바꾸어 놓았다.

3년11개월동안 그가 선보인 달인 캐릭터는 260개에 달한다. 아무런 맛도 못 느끼는 '실태 선행', 한 자세로만 살아온 '죽돌 선행', 격파의 달인 '굴뚝 선행',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온 '부진 선행'이 대표적이다. 김병만이 13일 방송분 출연을 끝으로 달인 코너에서 스스로 하차하기로 했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

다. 이유에서다.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전형적인 중상류층 가정인 밀라노의 은행원 아들로 태어났다. 건설업 등으로 막대한 돈을 모아 이탈리아 최대의 미디어 항상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8번째 도전만에 KBS 개그맨 공채에 합격한 7전8기 인생이다. 하지만 KBS 개그콘서트 '달인'코너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몸매가 최고 스타가 됐다. '몸매그는 수준이 낮다'는 개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도 각고의 노력 끝에 달인 수준의 실력파를 풍자한 유투브로 바꾸어 놓았다.

3년11개월동안 그가 선보인 달인 캐릭터는 260개에 달한다. 아무런 맛도 못 느끼는 '실태 선행', 한 자세로만 살아온 '죽돌 선행', 격파의 달인 '굴뚝 선행',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온 '부진 선행'이 대표적이다. 김병만이 13일 방송분 출연을 끝으로 달인 코너에서 스스로 하차하기로 했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

다. 이유에서다.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전형적인 중상류층 가정인 밀라노의 은행원 아들로 태어났다. 건설업 등으로 막대한 돈을 모아 이탈리아 최대의 미디어 항상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8번째 도전만에 KBS 개그맨 공채에 합격한 7전8기 인생이다. 하지만 KBS 개그콘서트 '달인'코너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몸매가 최고 스타가 됐다. '몸매그는 수준이 낮다'는 개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도 각고의 노력 끝에 달인 수준의 실력파를 풍자한 유투브로 바꾸어 놓았다.

3년11개월동안 그가 선보인 달인 캐릭터는 260개에 달한다. 아무런 맛도 못 느끼는 '실태 선행', 한 자세로만 살아온 '죽돌 선행', 격파의 달인 '굴뚝 선행',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온 '부진 선행'이 대표적이다. 김병만이 13일 방송분 출연을 끝으로 달인 코너에서 스스로 하차하기로 했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

다. 이유에서다.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전형적인 중상류층 가정인 밀라노의 은행원 아들로 태어났다. 건설업 등으로 막대한 돈을 모아 이탈리아 최대의 미디어 항상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8번째 도전만에 KBS 개그맨 공채에 합격한 7전8기 인생이다. 하지만 KBS 개그콘서트 '달인'코너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몸매가 최고 스타가 됐다. '몸매그는 수준이 낮다'는 개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도 각고의 노력 끝에 달인 수준의 실력파를 풍자한 유투브로 바꾸어 놓았다.

3년11개월동안 그가 선보인 달인 캐릭터는 260개에 달한다. 아무런 맛도 못 느끼는 '실태 선행', 한 자세로만 살아온 '죽돌 선행', 격파의 달인 '굴뚝 선행',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온 '부진 선행'이 대표적이다. 김병만이 13일 방송분 출연을 끝으로 달인 코너에서 스스로 하차하기로 했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

다. 이유에서다.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전형적인 중상류층 가정인 밀라노의 은행원 아들로 태어났다. 건설업 등으로 막대한 돈을 모아 이탈리아 최대의 미디어 항상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8번째 도전만에 KBS 개그맨 공채에 합격한 7전8기 인생이다. 하지만 KBS 개그콘서트 '달인'코너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몸매가 최고 스타가 됐다. '몸매그는 수준이 낮다'는 개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도 각고의 노력 끝에 달인 수준의 실력파를 풍자한 유투브로 바꾸어 놓았다.

3년11개월동안 그가 선보인 달인 캐릭터는 260개에 달한다. 아무런 맛도 못 느끼는 '실태 선행', 한 자세로만 살아온 '죽돌 선행', 격파의 달인 '굴뚝 선행',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온 '부진 선행'이 대표적이다. 김병만이 13일 방송분 출연을 끝으로 달인 코너에서 스스로 하차하기로 했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

다. 이유에서다.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전형적인 중상류층 가정인 밀라노의 은행원 아들로 태어났다. 건설업 등으로 막대한 돈을 모아 이탈리아 최대의 미디어 항상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8번째 도전만에 KBS 개그맨 공채에 합격한 7전8기 인생이다. 하지만 KBS 개그콘서트 '달인'코너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몸매가 최고 스타가 됐다. '몸매그는 수준이 낮다'는 개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도 각고의 노력 끝에 달인 수준의 실력파를 풍자한 유투브로 바꾸어 놓았다.

3년11개월동안 그가 선보인 달인 캐릭터는 260개에 달한다. 아무런 맛도 못 느끼는 '실태 선행', 한 자세로만 살아온 '죽돌 선행', 격파의 달인 '굴뚝 선행',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온 '부진 선행'이 대표적이다. 김병만이 13일 방송분 출연을 끝으로 달인 코너에서 스스로 하차하기로 했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

다. 이유에서다.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전형적인 중상류층 가정인 밀라노의 은행원 아들로 태어났다. 건설업 등으로 막대한 돈을 모아 이탈리아 최대의 미디어 항상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8번째 도전만에 KBS 개그맨 공채에 합격한 7전8기 인생이다. 하지만 KBS 개그콘서트 '달인'코너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몸매가 최고 스타가 됐다. '몸매그는 수준이 낮다'는 개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도 각고의 노력 끝에 달인 수준의 실력파를 풍자한 유투브로 바꾸어 놓았다.

3년11개월동안 그가 선보인 달인 캐릭터는 260개에 달한다. 아무런 맛도 못 느끼는 '실태 선행', 한 자세로만 살아온 '죽돌 선행', 격파의 달인 '굴뚝 선행',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온 '부진 선행'이 대표적이다. 김병만이 13일 방송분 출연을 끝으로 달인 코너에서 스스로 하차하기로 했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

다. 이유에서다.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전형적인 중상류층 가정인 밀라노의 은행원 아들로 태어났다. 건설업 등으로 막대한 돈을 모아 이탈리아 최대의 미디어 항상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8번째 도전만에 KBS 개그맨 공채에 합격한 7전8기 인생이다. 하지만 KBS 개그콘서트 '달인'코너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몸매가 최고 스타가 됐다. '몸매그는 수준이 낮다'는 개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도 각고의 노력 끝에 달인 수준의 실력파를 풍자한 유투브로 바꾸어 놓았다.

3년11개월동안 그가 선보인 달인 캐릭터는 260개에 달한다. 아무런 맛도 못 느끼는 '실태 선행', 한 자세로만 살아온 '죽돌 선행', 격파의 달인 '굴뚝 선행',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온 '부진 선행'이 대표적이다. 김병만이 13일 방송분 출연을 끝으로 달인 코너에서 스스로 하차하기로 했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

다. 이유에서다.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전형적인 중상류층 가정인 밀라노의 은행원 아들로 태어났다. 건설업 등으로 막대한 돈을 모아 이탈리아 최대의 미디어 항상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8번째 도전만에 KBS 개그맨 공채에 합격한 7전8기 인생이다. 하지만 KBS 개그콘서트 '달인'코너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몸매가 최고 스타가 됐다. '몸매그는 수준이 낮다'는 개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도 각고의 노력 끝에 달인 수준의 실력파를 풍자한 유투브로 바꾸어 놓았다.

3년11개월동안 그가 선보인 달인 캐릭터는 260개에 달한다. 아무런 맛도 못 느끼는 '실태 선행', 한 자세로만 살아온 '죽돌 선행', 격파의 달인 '굴뚝 선행',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온 '부진 선행'이 대표적이다. 김병만이 13일 방송분 출연을 끝으로 달인 코너에서 스스로 하차하기로 했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

다. 이유에서다.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전형적인 중상류층 가정인 밀라노의 은행원 아들로 태어났다. 건설업 등으로 막대한 돈을 모아 이탈리아 최대의 미디어 항상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8번째 도전만에 KBS 개그맨 공채에 합격한 7전8기 인생이다. 하지만 KBS 개그콘서트 '달인'코너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몸매가 최고 스타가 됐다. '몸매그는 수준이 낮다'는 개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도 각고의 노력 끝에 달인 수준의 실력파를 풍자한 유투브로 바꾸어 놓았다.

3년11개월동안 그가 선보인 달인 캐릭터는 260개에 달한다. 아무런 맛도 못 느끼는 '실태 선행', 한 자세로만 살아온 '죽돌 선행', 격파의 달인 '굴뚝 선행',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온 '부진 선행'이 대표적이다. 김병만이 13일 방송분 출연을 끝으로 달인 코너에서 스스로 하차하기로 했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

다. 이유에서다. 이탈리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전형적인 중상류층 가정인 밀라노의 은행원 아들로 태어났다. 건설업 등으로 막대한 돈을 모아 이탈리아 최대의 미디어 항상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8번째 도전만에 KBS 개그맨 공채에 합격한 7전8기 인생이다. 하지만 KBS 개그콘서트 '달인'코너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을 바탕으로 한 몸매가 최고 스타가 됐다. '몸매그는 수준이 낮다'는 개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도 각고의 노력 끝에 달인 수준의 실력파를 풍자한 유투브로 바꾸어 놓았다.

3년11개월동안 그가 선보인 달인 캐릭터는 260개에 달한다. 아무런 맛도 못 느끼는 '실태 선행', 한 자세로만 살아온 '죽돌 선행', 격파의 달인 '굴뚝 선행',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